

어느 고독한 철학자의 몽상

이수정 창원대 철학과 교수

IMF로 상징되는 '한국의 추락'을 겪으면서 '전 존재의 경제학'라는 경향을 섬뜩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맞이할 또 다른 위기가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이미 '대학'도 '교육'도 '철학'도 떨어진 낙엽처럼 짓밟히고 있다. 세상은 이것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것들이 '숭고한' 어떤 것이라 믿고 매진해 온 사람들은 그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고민한다. 살다보면 언젠가 철학의 목소리가 아쉬워 인터뷰를 요청해 올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때를 위한 예행연습 한 토막을 적어 본다.

▶ 기자 :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발표하신 한 글에서 "20세기에 들어 한국인들은 '철학'이라는 것이 유교, 불교, 도교에 이은 한국의 네 번째 정신적 전통으로 편입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철학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발언이겠지만, 한편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철학'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셨는지 분명히 해 주시겠습니까?

▶ 철학자 : 그 점을 오랫동안 자주자주 그리고 깊이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계와 인간의 근본 사실에 관한 이성적 이해와 설명"이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철학의 역사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인물에 따라 그것의 본질 규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을 "영원

한 미완성 교향곡" 또는 "백화 만발한 화원"으로 묘사한 적도 있습니다.

▶ 기자 : 자연과 신, 인식과 언어가 각각 고대와 중세, 근세와 현대의 큰 주제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 철학자 : 그 각각의 왜곡되지 않은 본질적 의미와 그 주제들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관련 주제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개개인에 있어서도 그 시기에 따라 철학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철학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철학규정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철학이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말'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철학을 면밀히 뜯어

보면 이것은 이른바 “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교과서적 규정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 경우 말한다는 것은 생각의 결과를 나타내는 모든 종류의 표현을 다 지칭합니다. 따라서 ‘쓰는’ 것도 당연히 말의 한 방식입니다.

▶ 기자 :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는 “말, 즉 개념의 창조가 철학의 역사를 잇는 고리 또는 성장점”이라고 강조하셨지요? 그렇다면 개념창조의 선행조건으로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선생님의 글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내용을 가지며 그 내용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 철학자 :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 그 자체로부터 촉발되고 야기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올 수도 있고 전통을 거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인간은 그것에 관련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들이 ‘만든다’고 자랑하는 것들도 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근원적인 ‘욕구’들이 그 생각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자 : 칸트는 선천적인 인식능력을 말했는데 선생님은 선천적인 욕구를 말씀하시는군요! 비결정론자들의 반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 철학자 : 철저한 회의론과 비결정론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칼을 들이대더라도, 우리는 그 옛날 갈릴레이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중얼거릴 것입니다. 그래도 타고난 욕구는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에는 눈 귀가 있고

손발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욕구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면 오만입니다. 다만 이 욕구는 그 실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생성 변화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욕구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점에 삶의 실질이 있습니다.

▶ 기자 : 생각의 내용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선천적인 욕구들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씀은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 철학자 : 그 욕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다양하며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욕구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좋다’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좋다’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 철학적인 개념으로까지 승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핵심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일거수 일투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좋음’을 목표로 합니다.

▶ 기자 : 하긴 친구와 만나 술잔을 나누는 것도, 고생스레 공부를 하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 좋으려고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군요. 어쩌면 플라톤이 말하는 ‘선의 이데아’가 이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 철학자 : 바로 그렇습니다! 플라톤 선생이 선의 이데아를 최고의 것으로 치는 것은 선, 즉 좋음이 최고의 원리라는 것을 그 양반도 꿰뚫어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라톤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그 첫 부분에 신의 창조과정이 묘사되지만, 그 각각의 과정이 끝난 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발견됩니

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피조된 모든 것(비종교적-현상적으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원리가 곧 좋음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 **기자** : 전 우주의 근본에 관한 엄청난 말을 듣고 있는 기분이군요. 하지만 선생님, 욕구의 본질이 좋음에 대한 지향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생각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 **철학자** : 그 좋음의 총족에 이르는 뱃길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거친 파도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좋음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구는 벽에 부딪칩니다. 그 벽 또는 파도는 넘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좋음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않을 수 없다'가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의 근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벽에 부딪쳤을 때 거기서 '경이'가 싹트고 그 싹에서 철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 **기자** :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벽, 파도의 종류에 따라 생각 즉 철학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문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의 경우는 어떤 파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선생님의 욕구는 어떤 좋음을 바라고 있습니까?

▶ **철학자** :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글들을 읽어주신다면 한 가지 대답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들은 이미 하나의 발언이고, 발언은 생각의 결과이며, 그 생각은 욕구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욕구는 좋음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철학을 움직였던 욕구는 존재의 실상, 다시 말해 세계와 인간의 근본구조를 알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그 모든 관심이 '삶'에 귀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삶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도 좋을 것이고 이 나라의 철학을 수립하는 데도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자** : 삶은 인간의 삶이고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철학'의 형태로 빚어내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결과를 지금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철학자** : 아직은 구상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이 철학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언어, 즉 개념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색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상도 사과처럼 익어야만 먹을 만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사과가 될지 배가 될지를 알기 위해 구상이라도 밝히라고 한다면 말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 **기자** : 듣고 싶습니다. 구상이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철학자** : 우선 철학의 관심사 내지 주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인 인간의 문제로 귀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리고 삶은 결국 '행위'의 총체라는 것, 그리고 행위는 '상호적 관계함'이라는 것, 그리고 상호적 관계함은 '신분'에 기초한다는 것, 그리고 신분에는 각각의 '관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관심의 기초에는 '욕구'가 있다는 것, 욕구는 '좋음'을 지향한다는 것, 좋음이 '인간의 궁극적 원리'라는 것, 등등을 저는 뼈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 각각에 대해 상론은 불가능하더라도 약간의 해설을 들려주십시오.

▶ **철학자** :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은

'삶'입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 자는 그저 '존재' 하거나 '생존' 할 따름이며, 오직 인간만이 '삶'을 살아잡니다. 즉, 인간은 '삶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실은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수많은 '행위'들의 총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랑한다던가, 미워한다던가, 가르친다던가, 배운다던가, 논다던가, 일한다던가 하는 등등의 모든 것들이 그런 '행위'의 실질인 것입니다. 이 행위들이 희노애락 등 온갖 감정들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란 것은,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행위는 '관계함'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 관계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하는 상호적인 것, 사회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서 자기가 자기에게 관계하는 실존적인 관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양단에는 각각 행위의 주체가 있고 그 주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종의 '신분'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구누구 '로서', 예컨대 아무개의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아내로서, 사장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무엇무엇인가를 욕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서'를 저는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분에 제약된 이런 '행위'들에는 각각 그 행위 주체들의 고유한 관심 내지 욕구가 근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관심 내지 욕구는 무조건적인 것이며 어떤 점에서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로 다양하면서도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다양한 무한의 욕구들이 '삶'의 다양한 실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관심' 내지 '욕구'들은 '무언가에 대한' 욕구이며 특히 '무언가 좋은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모든 욕구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간에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좋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은'은 인간행위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이른바 행복이라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좋은을 지향하는 욕구, 욕구가

결정하는 관심, 관심에 가로놓인 신분, 신분에 기초한 행위, 욕구 충족을 위한 이 행위들의 얽히고 설켜서 곧 우리들의 삶이요, 이 '삶'이 다름 아닌 인간의 '본질 중의 본질'인 것입니다.

▶ **기자** : '삶'의 기본적인 틀, 카테고리를 제시하시는군요. 이야기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시하신 구상이 성숙한 모습으로 익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대학이나 대학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짚어주실 수 있었습니까?

▶ **철학자** : 지금까지 '철학의 의미'를 생각해본 셈입니다. 저는 철학도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삶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철학뿐만 아니라 철학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학문 전체에도 해당하며, 따라서 그 학문의 장소인 대학의 본질에도, 즉 연구와 교육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대학은 학문을 통해 좋은 삶에 봉사해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을 철학은 해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해결을 위한 구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자** :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평소 '철학의 이념'으로 강조하시는 "문제의 해결"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라는 개념이 박종홍의 "현실" 개념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이 적어도 박종홍이 강조했던 "한국"이라는 것과 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견해를 들려주십시오.

▶ **철학자** : 우리의 한국이건 공자의 중국이건 플라톤의 아테네건 현실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좋은'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구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이 욕구의 충돌이 현실의 문제를 형성시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조정을 위해 철학은 이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정의' 내지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본질의 충족'이라는 가치가 문제해결의 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분들에는 각각의 본질이 있습니다. 버스운전사의 본질, 교사의 본질, 대통령의 본질, 아내의 본질... 그 본질들이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채워질 때 우리 한국은 물론 세계 모든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자 : 선생님의 기대대로 이 지상이 좋은 삶으로 가

득 채워져 "낙원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수정

건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경대, 하이델베르크대, 프라이부르크대에서 객원교수로 연구했으며, '92년 이래 한국하이데거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상학의 흐름』, 『해석학의 흐름』, 『근대성의 구조』 등을 번역했으며, 『言語と現實』, 『하이데거의 존재시유』, 『하이데거철학의 근본문제』, 『하이데거의 철학세계』, 『하이데거의 언어사상』, 『현실과 창조』 등을 공저하였고 『フッサールの言語論』, 『Zeitkritik bei Heidegger』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